

LG화학, 2차전지 안전성 공로 훈장

표준원, 제품안전 유공자 포상 ... 김종헌 전무 제품안전 동탑산업훈장

LG화학이 리튬이온 2차전지의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9월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2009 제품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품안전 유공자 42명에 대한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고 발표했다.

제품안전 동탑산업훈장은 세계 리튬이온 2차전지의 안전성 규격 제·개정 및 국내 시험에 공헌한 LG화학의 김종헌 전무에게 돌아갔다.

또 오토바이 헬멧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흥진에이치제이씨 안중구 대표이사는 산업포상을 받았으며, 부대 행사로 개최한 제품안전 UCC 공모전 입상자 26명에 대한 수상식도 거행됐다.

제품안전의 날은 2009년 2번째 열리는 행사로 과거 3개 행사인 전기용품 안전의 날, 공산품 안전의 날, 승강기 안전의 날을 통합한 것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02>